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어린이 위한 문화나눔 행사

KB증권은 서울 강남구 KB아트홀에서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문화나눔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KB증권 여직원회 '여울림'은 작년 어린이들의 높은 호응과 임직원들의 참가 후기가 좋았던 'KB증권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행사를 올해에도 이어서 지난 16일 진행했다. 다문화·새터민·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100여명을 초청해 나눔의 의미와 문화체험을 선사하며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김정아 여울림회장은 전래동화와 지구촌 소식 등을 통해 아이들과 직접 토론하며 나눔의 의미는 무엇이며, 함께하는 기쁨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ELS 1종 50억 규모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2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522호'는 홍콩항셍(HSCEI) 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7.10%(연 5.7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만기 시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손엄지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

선물거래 수수료 최대 반값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코스피200(KOSPI200) 선물 거래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달 24일 이후 최초로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한 온라인 고객 또는 올해 거래 실적이 없는 온라인 개인고객이다. 이벤트를 통해 KOSPI200 선물(주간)과 KOSPI200선물(CME 야간)의 거래 수수료가 0.0015%로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된 수수료 적용은 올해 말까지다. 이벤트 참여 및 문의사항은 이베스트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손엄지 기자

원금손실 '녹인'구간 1조… ELS 투자주의보

〈Knock-In〉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31.7조원
H지수 ELS 급증… 쏠림현상 유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7.1분기			17.4분기			18.1분기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ELS	19.9	24.0	64.6	27.4	32.9	55.2	23.4	18.7	59.6
DLS	7.7	6.4	33.1	6.7	7.4	34.8	8.3	6.6	36.3
전체	27.6	30.4	97.7	34.1	40.3	90.0	31.7	25.3	95.9

*해당기간에 상환(중도해지 및 일부상환 제외)된 종목의 총 명목금액.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이 30조원을 웃돌았다. 특히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ELS 발행이 급증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31조7000억원으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환규모는 25조3000억원으로 1분기 말 기준 잔액은 95조9000억원이다.

1분기 ELS는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23조4000억원이 발행됐다. 지난 2015년 1분기 24조2000억원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수요가 늘었다.

ELS는 대부분 공모(79.8%)에 원금비보장형(91.5%)으로 발행됐다.

발행형태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비중이 93.3%로 절대적으로 높고, 2개 이상의 기초자산 결합상품이 89.0%를 차지했다.

기초자산별로는 유로스톡스50(Euro Stoxx50) 19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H지수(15조7000억원) ▲코스피200(9조1000억원) ▲S&P500(9조1000억원) ▲니케이225(6조7000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H지수를 기초로 한 ELS 발행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4조원이나 급증한 반면 홍콩항셍지수(HSI) 발행규모는 7조9000억원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H지수를 기초로 하는 ELS 발행감축 자율규제가 지난해 말로 끝나고, 변동성이 큰 H지수가 HSI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LS 상환액은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감소했다.

조기상환이 16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조7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유로스톡스50 지수가 다소 하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일부가 조기상환되지 않았고, 지난해 말 대규모 상환으로 잔액 규모도 크지 않았다.

3월 말 기준 ELS 발행잔액은 59조6000억원이다.

1분기 DLS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8조3000억원이 발행됐다.

사모(82.3%)와 원금보장형(48.1%)의 발행 비중이 전년 동기 보다 각각 7.0%포인트, 3.9%포인트 높아졌다.

기초자산별로는 CD금리 등 금리 기초 DLS의 비중이 40.0%로 가장 높고, 혼합형(30.1%), 신용(24.6%), 환율(3.9%), 원자재(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DLS 상환액은 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DLS 발행잔액은 36조3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1분기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투자이익은 6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ELS 조기상환이 지연되면서 상환규모가 축소됐고, 일부 외화 발행 ELS의 경우 환율하락에 환차손도 발생했다.

ELS 투자이익률은 2.6%(연환산 3.6%)으로 악화됐고, DLS 투자이익률은 1.8%(연환산1.4%)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에 따른 이익은 36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급증했다. 유로스톡스50 등 주가지수 하락으로 부채 평가액이 감소했고, 채권 헤지운용 이익은 늘었다.

ELS 9014억원, DLS 848억원에서 원금손실이 가능한 녹인(Knock-In)이 발생했다. ELS는 주로 H지수(8941억원)를, DLS는 코스피200(842억원)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ELS 발행이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과거 대규모 녹인이 발생했던 H지수 ELS 발행이 급증했다"며 "증권사 간담회 실시 등으로 기초자산 다변화, 자체점검 강화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삼성증권 "北 원산, 랜드마크로 개발될 것"

삼성 리서치 포럼

관광지·항공물류 등 잠재력 높아

북한 원산이 랜드마크지역으로 개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증권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삼성리서치포럼에서 "원산은 금강산과 연계된 관광지 개발 외에도 해상 및 항공 물류의 중심지로서도 잠재력이 높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남북 경협사업이 경제통합 형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선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기업을 지원할 금융시스템이 특수은행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져야 민간자금 유치할 수 있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변혁과 미래 그리고 제언'을 주제로 열린 삼성리서치포럼 행사에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반도의 변혁과 미래 그리고 제언'을 주제로 열린 삼성리서치포럼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삼성증권

강사로 나선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원산개발협력은행의 활용방안 제언'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유승민 팀장은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은 체제안정을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고향이자 유일하게 별도의 특별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원산이 랜드마크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원산 개발을 위해서는 전력, 항만, 철도, 물류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런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을 지원할 특수은행, 즉 '원산개발협력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산개발협력은행의 설립 방법으로는 우리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요국 정부개발원조(ODA)가 공동출자하는 모델을 제시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개발협력은행과 북한정부, 국내 전략적 투자자들이 각종 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고, 국내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필요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각종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구성훈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 완화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업계최초로 북한전담리서치팀 신설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코스닥 종목 313개, 사상 최고가 경신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중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LG생활건강 등이 사상 최고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2098개 가운데 313개(14.92%)가 연초 이후 이달 14일 사이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시장별로 보면 이 기간 지수가 6.41% 상승한 코스닥시장에서는 전체 1216개 종목 중 213개(17.52%)가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이에 비해 지수가 2.27% 하락한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체 882개 중 100개(11.33%)만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최고가 경신 종목의 올해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의 경우 평균 48.89%였고 코스닥은 평균 43.82%였다.

업종별로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화학(18개), 의약품(17개), 금융(16개) 업종에서 최고가 경신 종목이 많이 나왔다.

코스닥에서는 기타서비스(23개), 반도체(22개), 제약(22개) 순으로 최고가 경신 종목이 많았다.

시가총액 상위사 중 최고가를 경신한 코스피 종목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7위), KB금융(9위), LG생활건강(12위), SK(19위), 하나금융지주(25위) 등이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대장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메디톡스(3위), 바이로메드(4위), CJ E&M(7위), 셀트리온제약(8위) 등이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김문호 기자

호반건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호반건설은 18일 경기도 군포시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포10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당동 78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49층 6개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1668가구(예정),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3368억원이고, 2021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단지에서 도보로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군포로 등 광역교통망도 갖춰져 있다. 인근 금정역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경찰서지구대 등 생활 기반 시설도 근처에 있다.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 /호반건설

호반건설 관계자는 "회사 신용도, 브랜드, 사업제안조건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시공사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